

Waiting for the Time 기다림

성 경 본 문	시편 13편
요 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1절)
찬 송	412장(통 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과의 목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워서,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사람들이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2. 기다림의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II. 생각 넓히기

1. 고통 속의 기다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대략 십 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이고,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삼십 세였으니 왕이 될 때까지 약 십오년 년 정도를 기다린 셈이다. 다윗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거의 십 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정말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저작 시기나 배경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다윗이 원수들에 둘러 쌓여 있고, 거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도피 생활 중에 기록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특별히 1-2절에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부분을 대화체로 직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꺾을 만큼 꺾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고 있을 겁니까? 나를 영원히 잊고 있을 걱정입니까? 언제까지 본척 만척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다윗은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도 힘들었지만, 다윗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오래 버텨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지 않았을까!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자신이 속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면서 절규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경제적 자유,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 특정한 기도의 응답...?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아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림의 고통을 정직히 쏟아내 보면 어떨까?

2. 신뢰 속의 기다림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피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을 피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대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3-4절). 다윗은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절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처럼 보인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다윗에게는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 사울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다림의 시간을 자신의 손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없애지 않았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정당방위라는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하나님의 결정, 곧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고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고통 속에 있는 자기를 돌아보시지 않는지를 아직은 모르지만,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자. “나는 오직 주의 사랑(히: 헤세드)을 의지하였사오니....”(5절). 여기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쎄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림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 얼마나 오래 동안 기도해 왔는가? 혹시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사도 바울의 격려의 말을 들어 보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정확히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 속에서 기다림을 이어가자.

3. 기대감 속의 기다림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듯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로 왜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느냐고 절규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5절). 그러다보니 다윗의 마음은 어느새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5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시 베푸실 사랑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채워졌다.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에는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 혹은 은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6절).



다윗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은덕을 미리 기뻐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미리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미리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III. 생각살기

1. 현재 당신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으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 다음 시간까지 유익한 기다림을 훈련해 봅시다.
2. 우리 교회가 현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